



충청북도 의회 소식



150만 충북도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발행인 충청북도의회 의장/ 편집인 의회사무처장/ 주소 (우)360-765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 89번지/ 전화 (043)220-5123/ (월간)

제256회 임시회

도정 및 교육시책 청취와 하이닉스 충북투자 건의문 채택

충청북도의회는 1월 22일부터 1월 29일까지 8일간 제256회 임시회를 열고 도정 및 교육시책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하이닉스 공장증설 충북투자지원 건의안을 채택하여 청와대와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환경부, 건설교통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전달하였으며 부의 안건을 처리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제1차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장단·상임위원장단 회의에서는 하이닉스 청주공장 유지와 제258회 임시회 도정질문 준비계획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는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안,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충청북도향토음식기능보유자치정조례 폐지조례안, 제4기 충청북도 지역보건의료 계획안, 충청북도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



▲ 1월 22일 제 256회 임시회를 열고 도정 및 교육시책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다.

안, 충청북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고 당면

현안 해결을 위한 간담회와 현지활동을 실시하였다.

하이닉스 공장증설 충북투자 지원 건의문

**존경하는 노무현 대통령님,
권오규 재정경제부장관님,
김영주 산업자원부장관님,
이치범 환경부장관님,
이용섭 건설교통부장관님,
성경룡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님께!**

변화와 혁신을 여망하는 전 국민의 뜻에 따라 국토의 균형개발은 물론 우리 지역의 현안해결을 위해 각자적인 노력을 기울이시고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28일 기업 환경개선 종합대책에서 수도권 공장총량제 확대, 수도권 공장증설을 선별적으로 허용하는 규제완화를 발표 하였습니다.

또한,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 위치한 하이닉스 이천공장의 증설에 대한 허용 여부를 놓고 지난해 11월 말부터 3차례나 연기하였으며, 지난 1월 12일 하이닉스가 투자계획을 변경하여 제출하겠다고 요청

함에 따라 정부의 입장을 유보한 것은 양 지역의 갈등만 증폭시키고 특히 충북지역 도민들에게 실망감과 정부 정책에 불신을 한층 더 깊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소재한 이천지역은 2천 3백만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으로 삶의 질에 직결된 문제로서 정부에서도 수질개선을 위해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나 상수원 지역과 주변지역의 인구증가에 따른 개발 압력 가중으로 실제 수질개선 효과는 미미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팔당 상수원 보호를 위해 각종 개발사업을 엄격히 규제해야 함에도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인 이천 지역에 공장증설을 허용한다면 국가 균형발전과 환경, 식수원 문제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환경단체와의 갈등과 마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충북 청주지역은 하이닉스반도체가 유동성 자금문제로 해외매각의 위기에 처했을 때 도내 각급 기관·단

체를 중심으로 범 도민 차원에서 매각 반대를 위한 도민 결의대회를 비롯해 채권단 방면과 서명운동, 대정부 건의, 주식갓기 캠페인 등 하이닉스 살리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한 바 있습니다.

청주지역에는 하이닉스 청주공장도 인근의 (주)삼익부지 등 유휴지를 활용할 경우 즉시 투자가 가능하고, 하늘과 땅으로 연결되는 사통팔달의 편리한 물류·교통망과 전문인력 유치 등 투자환경이 이천지역과 비교 할 수 없을 정도의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충청북도와 청주시에서는 하이닉스가 청주지역에 투자한다면 공장증설과 관련된 인프라는 물론 추가로 소요될 부지를 적극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향후 하이닉스가 세계적 기업으로 발전하는데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확고한 의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은 앞으로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대원칙이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충북지역에 하이닉스 공장 증설이 추진되도록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건의하는 바입니다.

첫째, 정부는 지역경제 회복에 획기적 계기가 될 하이닉스 공장 청주증설을 조속히 확정하여 줄 것을 건의 드림.

둘째, 정부는 정치적 논리가 개입된 양 지역간 나누어 먹기식 절충안을 지양하고 법과 원칙에 근거하여 정부입장을 결정하여 줄 것을 건의 드림.

셋째, 정부는 수도권과 자연보전권역에 대기업의 공장 신·증설을 법과 원칙에 따라 불허하고 국정목표인 국가균형 발전 차원에서 지방의 산업·경제가 함께 도약 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강력히 시행할 것을 건의 드림.

2006년 1월 22일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

개 회 사



오 장 세 의장

존경하는 150만 도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정우택 도지사님과
이기용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
무원 여러분!

정해년 새해를 맞아 도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넘치고 소망하는 일
들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충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한해 의정 발전을 위하여 아
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 주신 도민 여려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
에도 변함 없는 성원과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연말 연시를 맞아 지역의 사회복
지시설과 생활환경 등을 찾아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
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민생현안문제 해
결과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 실현을 목표
로 경제특별도 건설을 성실히 준비해 오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도 깊

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돌아켜보면 지
난해에는 우리 지역에 집중호우로 큰 피해
가 발생하였으며, 하이닉스 매그나칩 반도체
의 노사문제 등으로 도민들이 많은 어려
움도 있었으나, 전국 최초로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을 도입하였고, 74개의 첨단기업을
유치하기도 하였으며, 전국 시·도 교육청
평가에서는 7회연속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
는 등 각 분야에서 눈부신 성과를 이루어 냈
습니다.

특히, 우리도 출신인 반기문 전 외교교통
부장관이 제8대 유엔사무총장으로 선출되
어 충북은 물론,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세계
에 드높인 쾌거를 이루기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금년은 지난해 제8대 도의회가 출범된 이
후 새롭게 시작되는 해입니다. 먼저 우리 도
의원 모두는 도민 여러분께 약속했던 초심
을 잃지 않고, 그간의 의정경험을 토대로 더
욱 연구하고 노력하는 의원상을 정립해 나
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은 국가적으로는 지방분권과 균
형발전 그리고 혁신과제 등 주요정책이 지
속적으로 추진 될 것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역경제의 현안인 하이닉
스 공장 증설의 청주 유치 등 지역 현안문제
해결에도 도민의 뜻이 반영 될 수 있도록 최
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
니다.

집행부에서는 경제특별도 건설에 걸맞는
경제활성화를 최우선으로 하는 시책을 펼쳐
나가면서, 변화하는 경제 환경에도 능동적
으로 대처하여, 서민생활을 안정시켜 나
가는데 모든 역량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충북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경
부·호남 고속철도 오송역, 혁신도시, 그리
고 기업도시의 건설 등으로 충북의 희망찬
미래를 위하여 어느때 보다도 좋은 지역발
전의 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최대한 살려 우리 충북이
지리적인 국토의 중심뿐만 아니라 이제는
행정중심 복합도시의 배후지역으로 실질적
인 국가의 중심으로 도약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도의회의 금년도 중점 추진할
의정활동 방향은 도민과 함께하는 생산적
의정을 실천하고 전문성 향상을 위한 의정
활동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우리 지역의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
의회가 앞장서서 적극 노력하는 한편, 지역
경제 활성화, 의정활동 정보화 등 한차원 높
은 의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와 같은 의정활동 방향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동
참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도
지난해에 이룬 성과를 바탕으로 도민 모두
가 행복하게 잘사는 충북을 만들고, 한국경
제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256회 임시회는 오늘부터 8일간의 일정으
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금번 회기에는 금년도 도정 및 교육시책
에 대한 업무보고와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다루고자 소집된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집행부에서 수립한 도
정과 교육시책이 도민의 복리증진과 교육발
전을 위해 내실있는 계획이 되었는지 면밀
히 검토하시어 도민의 뜻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발전적인 대안도 제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직
자 여러분께서는 의원님들이 제시하는 의견
들을 금년도 도정과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
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아직도 한겨울의 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
다. 아무쪼록 건강에 유념하시면서 이번 임
시회가 우리도 발전의 비전을 제시하고 도
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는 뜻 깊은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
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과
도민 여러분 모두, 금년에는 소망하시는 일
을 꼭 이루시기를 기원드리며 가정에는 항
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고 뜻하시는 모
든 일이 성취되시길 기원드리면서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

군(軍) 교육기관 괴산군 유치 지원 촉구

김환동 의원
(행정자치·괴산 제1)

괴산군이 추진하고 있는 군
(軍) 교육기관 유치와 관련하여 충청북도도와 도의회 차원의
유치활동 지원을 촉구한다.
괴산군은 열악한 교통여건
과 속리산국립공원구역으로 인
한 각종 규제, 문장대 온천개발
논란, 중평군 분리 등으로 너무
도 많은 고통을 받아 왔다. 이
러한 어려움과 불이익 속에서도 괴산군민은 희망을 잃지
않고 지역발전을 위한 지혜를 모아 군(軍) 교육기관 유치를
추진해 왔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국군체육부대
유치를 위해 함께 경쟁해온 진천군은 경상북도와의 유치
전에서 우리 충청북도로의 유치를 위해 도의 중재 하에
괴산군에 유치를 양보하는 큰 결단을 내림으로써, 도와
이웃군간 협력으로 동반성장을 이루어 보려는 아름다운
모습까지 보여 주었다. 그러나, 마땅히 우리 군을 도와야
할 영동군이 충청북도의 불승인과 만류를 뿌리치고, 2007
년 1월 5일, 뒤늦게 유치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이웃군으
로서 도의(道義)를 저버리고, 충북을 사분오열시키는 결
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상식을 벗어난 일이 계속된
다면, 우리 도는 협력도 없고, 오직 대립만이 난무하여 우
리가 함께 이루려는 경제특별도 건설은 요원(遙遠)해질
것이다.

이에 본 의원은 시·군 간에 지켜야 할 최소한의 상식
과 도의가 살아날 수 있도록 영동군은 이제라도 유치신청
을 지진 철회하기 바라며, 괴산군의 군(軍) 교육기관 유
치를 도차원에서 지지하고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한다.

호미지구 택지개발사업에 현명한 결정을

이대원 의원
(산업경제·청주 제2)

인하여 충북개발공사가 이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부당하다
고 주장하는 바이다.

첫째, 민간이 이미 사업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에 충북개
발공사가 참여하는 것은 "민간인의 경영참여가 어려운 사
업으로서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규
정한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2항과 제3조에 저촉된다.

둘째, 충북개발공사 사장이 공시지가 250%보상을 공공
연히 약속한 것은 법정소송의 여지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개발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지나치게 높은 보상가로 인한
자본금 잠식 시 그 부담은 충청북도의 몫이다.

셋째, 충북개발공사가 민간개발측 동의를 징구를 방해하
는 것은 주민의 72% 정도가 민간개발사업을 바라고 있는
상황에서 충북개발공사의 설립목적에 위배되는 행위이다.

충청북도에서는 가장 중요한 동서의 진정성은 간파하
고, 시한이나 혹은 사소한 서류미비 등의 사유로 충북개발
공사로 확정되었다고 할 때, 목적성에 부합되지 않는 동 결
정에 유감을 표하며, 충청북도는 호미지구 사업시행자 선
정과 관련하여 주민의 입장에서 현명하게 결정할 것을 촉
구한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인사시스템 운영 촉구

최미애 의원
(교육사회·비례대표)

최근 충북도의 복지여성
국장 인사는 다른 사안에서
는 보기 드물게 언론과 여론
의 비난을 받았다.

본 의원은 충북도민의 대
변자로서 최근 인사에 대한
잡음과 여론을 듣고만 있을
수 없어 이 자리에 섰다.

충북도는 여성계와 복지
계, 시민단체 및 신문 3사의 사설에서 까지 인사철회
를 권유했건만 임명절차를 강행했다.
여성정책과 복지정책에서 민·관협력관계가 훼손
되는 이런 상황은 도정에 반드시 부담이 될 것이다.

또한 심사위원회의 불균형적 구성과 투명성 시비
와 중앙인사위원회 조사 여론을 심사점수의 중요한
평가항목에 반영하도록 권고하였으나 적용하지 않
았고 특정 주제에 대한 의견발표와 성공적인 업무수
행 실적 발표, 집단토론 등의 다양한 방법도 공정하
게 적용하지 않았다.

행정업무에 혁신을 부르짖으면서도 인사행정을 너
무나 안일하고 구태의연하게 한 점이 매우 안타깝다.

향후 모든 공무원개발직과 산하기관과 출연기관
등의 인사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객관적이고 투명하
게 검증하는 시스템적 인사운영으로 적재적소의 인
재발굴에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라며 공평한 원칙과
기준으로 도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펼쳐주시길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의회운영위원회

2007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업무계획 청취

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이종호)는 제256회 임시회 회기중 1월 22일 제1차 운영위원회회의를 열고 2007년도 의회사무처소관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고 제257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와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의결하였다.

의회사무처의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면 「도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의회」를 정착시키기 위해 의정 운영 기본방향을 도민복지증진을 위한 선진 의정 실현, 지역현안 해결과 지역 균형발전 선도, 활력 있고 신뢰받는 의회구현으로 설정하고, 도민에게 다가서는 열린 의정 실현,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회기 운영, 수준 높은 의정활동 지원 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자문위원 연구보고회 개최, 어린이 의회교실 운영, 각종 현안사항에 대한 공청회 운영 등의 혁신과제를 보다 알차게 추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키로 하였다.

제257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은 2007년 2월 22일부터 2월 28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2월 22일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제25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부의된 기타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2월 23일부터 2월 27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와 주요사업 현장방문 등 계획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며 2월 28일 제2차 본 회의를 재개하여 부의된 안건과 기타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7일간의 회기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중 간사 명칭이 부위원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현재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중 간사명칭을 부위원장으로 변경하고 제67조의2 준용규정 중 부위원장명칭을 부의장으로 용어를 정정하기로 심사·의결하였다.



◀ 업무보고 청취
1월 22일 의회사무처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고 있다.

간담회 ▶

1월 22일 제257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있다.



행정자치위원회

시·군간 재정격차 및 불균형 해소를 위한 보조금 관리 조례안 심사



▲ 업무보고청취

자치행정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와 현안 사항에 대한 건의 및 답변을 청취하고 있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필용)는 2007년 1월 22일부터 1월 29일까지 8일간 열린 제256회 임시회 기간 중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 행정중심복합도시광역시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채택, 충청북도 보조금 관리조례안을 심의·의결하는 등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전개하였다.

먼저 소관 부서에 대한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였고 경제특별도 건설을 통한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 실현을 위해 수립된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을 집행부에 주문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부의 하이닉스 청주공장 증설 확정발표에 따른 후속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과 논란이 계속되

고 있는 수도권 규제 완화·대수도론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비수도권협의회의 활성화 추진, 군(軍) 교육기관 유치와 관련한 괴산군과 영동군의 갈등 문제에 대해 시·군간의 조정역할을 담당하는 충북도가 충분히 임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하면서 향후 시·군간 갈등에 대해 충북도가 책임있는 자세로 조정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재정 인센티브와 페널티 등을 도입해 조정역할의 실효성 확대 방안 강구, 청주·청원권에 유치된 주요 인프라가 도내 전 지역에 효과적으로 전파되어 시·군간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균형발전 로드맵의 수립을 촉구하였다.

또한 1월 26일 실시된 제2차 회의에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광역시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채택하여, 청주·청원·보은에서 경북북부지역으로 체계적·단계적 개발을 유도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적정수준의 도시적 개발촉진을 위하여 우리도에서 경상북도권으로의 개발촉진 필요성, 광

역도시계획에서의 고속교통순환체계 형성과 교통네트워크 구축을 기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교통망을 분산시키기 위하여 남북3축 고속도로(증평~보은~영동~무주) 건설 요구,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권내 거점도시간 위계와 기능의 연계성을 갖춘 대동맥 기능의 간선교통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청주간 직접연결도로 신설의 필요성, 도내 관련 4개 시·군과 관계전문가의 추가적인 검토 및 의견수렴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밖에 충청북도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 하였다.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본 개정조례안은 도비보조사업에 차등보조를 제도를 도입하여 재정력이 양호한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인화보조율을, 재정력이 약한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인상보조율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금번 조례안 개정으로 도비보조사업을 통해 지역간 재정격차 및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법적기반을 마련하였다.



교육사회위원회

저출산 고령화 대책 등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사

교육사회위원회(위원장 이기동)는 1월 22일부터 1월 29일까지 7일간 열린 제256회 임시회 회기중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복지여성국의 5개 기관 및 교육청의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2006년도 정리추경 이후의 간주처리예산의 편성결과 및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외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조례안 2건을 심의·의결하는 등 알차고 내실있는 의정활동 등을 전개하였다.

충청북도청의 업무보고에서는 도내 지역별 질병 발생 현황에 대한 조사, 각 지역의 보건상황에 맞는 대책 마련과 충주의료원의 시 외곽으로의 신축이전에 따른 주민불편 최소화, 국가보훈단체 지원 및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저출산·고령화사회 대비 등 도차원의 근본적인 해소 대책 방안 강구를 해당기관에 주문하였다.

또한 충청북도교육청 주요업무 보고에서는 농촌학교에 대한 지원이 도시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되지 않도록 하고, 대학생 멘토링제 운영 결과에 대한 철저한 사업결과 분석, 충청북도BIO교육문화회관 신축사업의 공정별 사업추진 실태 및 교복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을 주문하였다.

특히 이번 회기에서는 충북도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 및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장기적인 대비책을 마련



▲ 1월 23일 충북과학대학의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고 있다.

하기 위한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충북도민의 건강육구 충족과 건강위험 요인의 감소를 통해 주민 편의 증대를 위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고, 충청북도교육청

의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충청북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제정을 심사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산업경제위원회

2007년 업무계획 청취 및 건의문 채택



▲ 1월 23일 농업기술원의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고 있다.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정운숙)는 제256회 임시회 기간중 하이닉스 공장증설 충북투자 지원 건의문 채택과 경제투자본부, 농정본부, 농업기술원 등 소관 부서에 대한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와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 등 바쁜 의정활동을 전개하였다.

지난 1월 22일에는 하이닉스 공장 충북증설 유치를 위한 하이닉스 공장증설 충북투자 지원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였다.

경제투자본부 소관의 업무보고에서는 선택과 집

중을 통한 일류기업 유치, 도민 모두가 동참하는 경제특별도 기반 강화,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 육성기반 조성, 글로벌 비즈니스 강화를 위한 경제외교 확대, 기업하기 좋은 충북실현 등에 관한 보고를 청취한 후 경제특별도 건설을 위해서는 매력있는 투자환경 조성을 통한 국내·외 일류기업 유치가 최우선 과제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농정본부 업무보고에서는 도시민과 더불어 사는 복지농촌 조성, 고품질·친환경 농업육성, 생산·유통 선진화로 수출농업 정착, 축·수산업의 경영안정 및 안전성 강화, 경제·환경·문화적 가치 높은 숲다운 숲 육성 등에 관한 보고를 청취한 후 최근 친환경농업이 각광을 받고 있으나 이제는 기능성농업에 관심을 갖고 농정업무를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농업기술원 업무보고에서는 농가소득 향상 안정화 종합기술확립, 원예작물의 신품종 육성 및 안전생산기술 개발, 친환경 농업 생산기술 개발, 소비자가 만족하는 일류 농산물 생산, 농업·농촌 가치증진과 삶의 질 향상, 미래 선도농업인 양성과 현장서비스 기능강화 등에 관하여 청취한 후 생산·경영·정기기술의 집약으로 도시민이 동경하는 살기 좋은 농촌을 건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안은 조례안이 현실과 불부합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



건설문화위원회

건설경기 활성화와 관광특구지역 육성전략 주문

건설문화위원회(위원장 송은섭)는 1월 22일부터 29일까지 실시된 제25회 임시회 기간중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에 대한 검토, 조례안 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였다.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에 있어, 건설재난본부 소관으로는 경제특별도 건설의 초석이 되는 지역건설경기 활성화에 매진해 줄 것과 모든 공사가 건실시공이 될 수 있도록 공사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시시켰다.

문화관광환경국 소관으로는 도덕성 회복 사업이 목적에 부합하여 제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과 도내 관광특구지역의 육성을 위한 새로운 전략과 구상의 시급성을 강조함은 물론, 장마철에 대형·중주댐으로 유입되는 부유쓰레기에 대한 조기 처리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였다.

소방본부 소관으로는 내구연한이 경과된 중주호 소방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 내용이 미흡함을 지적하고 이후 신속한 화재진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소방정을 소형화하는 등 합리적인 처리 대책을 강구토록 요구하였고 화재예방활동에 있어서는 공공기관 등에 대한 소방점검 등을 철저히 시행할 것을 당부하였다.

생명산업추진단 소관으로는 밀레니엄 타운 조성 및 전시컨벤션시설 건립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자칫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다.

또한, 1월 26일 제2차 건설문화위원회에서는 2005년도,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조례운영의 실효성 문제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지적해온 충청북도향토음식기능보유자지정조 폐지조례안을 상정하여 원안가결하였다.

업무보고 청취 ▶
1월 23일 건설 재난관리본부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고 있다.



◀ 간담회
1월 22일 국제도시 규모의 전시컨벤션 시설 건립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다.

조례안

충청북도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제안이유〉

• 지역간 재정격차 및 불균형 해소를 위해 보조사업에 차등보조를 제도를 도입하고, 그간의 행정 및 재정여건의 변화를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개선·보완하기 위함.

〈주요내용〉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중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을 법령의 취지와 내용에 부합하도록 신설.
• 지역간 재정격차 완화를 위해 보조사업에 차등보조를 제도 도입.(안 제9조)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안 : 의견제시

〈제안이유〉

• 2006년 1월 2일 지정·고시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계획안의 장기적인 발전방향 및 전략을 제시하고자 건설교통부장관이 입안한 후 결정에 앞서 도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함.

〈도의회 의견제시내용〉

• 청주·청원·보은에서 경북 북부지역으로의 체계적·단계적 개발을 유도하여 개발 지역내의 난개발 방지 및 적정 수준의 도시적 개발 촉진.
• 부문별 계획의 광역교통계획에서의

고속교통순환체계 형성과 교통 네트워크 구축을 기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교통량을 분산시키기 위하여 청주시 광역도시계획에 설정되어 있는 남북3축고속도로(증평~보은~영동~무주)를 계획에 포함하여 국토의 균형발전과 행정도시 주변의 교통량을 감소시키도록 추진.

• 행정중심복합도시~청주간 직접 연결 도로를 신설하여 인접광역권 도시의 물류를 담당할 중부물류 기지의 기능을 다하도록 도로의 신설이 필요.

충청북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수정가결

〈제안이유〉

•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재원을 적립하고 부채규모를 감축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 감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수정내용〉

• 조례안 제13조의 조문 중 본 감채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의 설치 근거 법령으로 명시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5조”의 조문은 지난 2006년 12월 20일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되어, 법령근거를 개정 법률에 일치시키기 위함.
• 제정안 제1조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5조(지방자치법 제133조 준용)”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로 함.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제안이유〉

• 2007학년도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신설과, 실업계 고등학교 운영체제 개편으로 학교 명칭을 변경하고 학교이전에 따른 주소변경 및 학생수 감소로 소규모학교 폐지에 따라 도립학교 설치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2007학년도 단설유치원 1개원, 병설유치원 5개원, 초등학교 3개교 및 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 3개교 신설.
• 실업계 고등학교 운영체제 개편에 따른 교명변경.
• 운동초등학교 이전에 따른 주소 변경.
•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따른 초등학교 2개교, 초등학교 분교장 2개교,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4개원 폐지.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 원안가결

〈제안이유〉

• '95. 12. 29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보건 의료 환경 변화에 적합한 운영과 지역의 보건 의료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국가의 보건 의료 정책을 발전적으로 수행하여 도민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함.

〈주요내용〉

• 지역사회 중점과제 선정 및 전략 수립.

• 공공보건 인프라 확충 및 기능강화.
• 개별사업 추진.

충청북도향토음식기능보유자지정조 폐지조례안 : 원안가결

〈제안이유〉

• '95년 1차 지정 후 신청자가 없어 추가 지정과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시군별로 고장을 대표하는 향토음식을 선정하여 육성하는 한편, 대물림 전통음식 계승업소 인증, 모범업소 지정 등을 추진하고 있어 지정의 실효성이 미미하므로 폐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충청북도향토음식기능보유자지정조 폐지.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원안가결

〈주요내용〉

•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중 간사 명칭이 부위원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현재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중 간사명칭을 부위원장으로 변경하고 제67조의2 준용규정 중 부위원장 명칭을 부의장으로 용어를 정정.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부결

〈주요내용〉

• 현실과 불부합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

의원칼럼



정 윤 숙 위원장
(산업경제위원회)

“내가 변변치 못하여 주변사람들 힘들게 하는 구박도” 하며 부끄럽다고 전화하시는 분

“내가 이런 성품 발기에는 아직 계산을 도출할 수 있는 힘이 있으니 고맙지만 더 부끄러운 사람에게 나누어 줘요” 라고 사양하는 분

물품의 재사용을 통해 나눔과 순환 운동을 펼치고 있는 <아름다운 가게>에서 주관하는 “2007 아름다운 나눔 보따리” 행사가 지난 1월 28일 전국적으로 실시되어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겨울을 나도록 돕기 위한 나눔 보따리 2,700개를 배달하였다.

2004년부터 매년 1월에 실시해온 ‘아름다운 나눔 보따리’ 행사이지만 우리 청주문화점은 작년 여름에 오픈한지라 처음하는 행사였다. 올해 준비된 나눔 보따리는 아름다운 가게 매장의 2006년 12월 판매 수익금 중 일부로 구입한 쌀과 LG생활건강 등 10개 기업에서 기증한 식료품, 세제, 생활용품 등 약 11만 5천원 가량의 물품들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보따리 행사를 하며, 나는 부끄러움이 무엇인지 모르고 사는 사람이 태반인 요즘을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을 만나고, 아직 걸을 수 있고, 더구나 계단도 오르라는 희망이 있는 사람 즉, 겸손지심과 사양지심이 가득한 분도 만났다.

사람이 희망이다. 어려운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 사람의 환경에 눈물 흘리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보듬어 주며 희망을 느낀다. 슬픈 것도 사람 때문이고, 기쁜 것도 사람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

에 정말 희망이라는 말을 <아름다운 가게>를 운영하며 깨닫게 됐다.

아름다운 가게 운영을 맡으며 나는 수많은 천사를 만난다.

일주일에 한번씩 매장에 나와서 가게를 꾸리는 판매천사, 기증을 해주신 천사, 수거·분류·생산 해주시는 천사님, 이러한 자원봉사자들로 가득한 아름다운 가게에 구매해 주시는 구매천사님들이 당연히 있어야 대상도 오르고, 그것으로 우리는 정기배분, 특별배분, 긴급배분, 테마배분 등의 수익 나눔의 행사를 할 수 있다. 사소한 것 같지만 그 작은 마음들이 모여서 결국 환경을 살리고,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밑거름이 되는 것이다.

어떤 때에는 ‘아름다운 토요일’을 운영하기도 한다.

‘아름다운 토요일’은 한 기관이 기증부터 판매까지 모두 맡아서 천사 역할도 해주시며, 기금조성도 해 주시는 토요일천사기관이며, 아토(아름다운 토요일)에 기증된 물건들이 다음주의 매장까지 연결된다.

나는 이 지면을 통하여 “아토”에 참

여 해주신 서원대학교, LG생활건강, 경찰청 인포데이터, 한국도로공사(진천지사), 현대백화점, 검찰청(범죄예방협의회) 등과 장소를 제공해 주신 충청북도 그리고 내부인테리어 기금을 기탁하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런 각계각층의 작은 나눔, 큰 배려가 우리사회를 아름답게 만들고, 설날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나눔 보따리’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나눔 10계명 중의 하나가 “좋은 일도 전염 된다”이다. 나는 아름다운 가게의 행사 때마다 좋은 일도 전염되게 전파해 주시는 언론사기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나는 아름다운 가게를 보며 감사함을 알았고, 희망을 알았다. 아름다운, 감사, 희망, 그것들은 모두 작은 나눔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닌가? 정해년 새해에 우리 의회에서든 지난 어느 아름다운 토요일에 소중한 사람을 위해 1%의 나눔을 선물하면 어떨까 생각한다. 나눔 10계명 중의 또 하나는 “가진 것 하나만 주변 행복이 돌이 온다고 믿어라”이다.

의원칼럼



이 언 구 부위원장
(건설문화위원회)

지난 1월25일 충북도는 경제 특별도 선포식을 갖고 ‘잘사는 충북·행복한 도민’을 만들기 위한 힘찬 시동을 걸었다. 이날 선포식에는 전국 경제관련 단체장과 각계 인사 등 1천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특별도 건설 로드맵인 ‘충북아젠다 2010’ 발표와 함께 경제특별도에 걸맞는 각종 기업유치운동에 적극 나설 것으로 결의했다. 특히, 도는 2010년 1인당 도민소득 3만1천달러 달성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 한편 전국대비 4% 경제실적을 끌어 올릴 것을 다짐했다.

이를 위해 충북도는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경제부흥을 외치고 있는 가운데

차별화된 경제특별도 건설을 도정의 최우선 목표로 삼을 것을 도민들에게 약속했다. 때마침 선포식을 축하하러도 하듯이 충북경제회생의 최대현안인 하이닉스 반도체공장 증설계획 일부가 우리 고장 청주로 결정되었다는 낭보와 함께 일부 국내기업과의 투자협정조인식도 있었다. 진정으로 1백50만 도민 모두와 함께 경제특별도의 성공을 기원하고 또 기원한다. 이 같은 간절한 바람을 전하면서 다음사항을 지적하고자 한다.

바로 수도권 집중화를 통한 갖가지 부작용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충북도가 그대로 밟아가고 있다는 우려이다. 서울,인천 등 수도권에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절반 가까이 몰려 지역균형발전에 큰 저해요인으로 나타나 정부에서는 연기 신행정수도건설과 각 시·도의 혁신도시 설치 및 행정기관 이전 등을 통해 인구분산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구집중과 편중된 개발로 일어나는 폐단은 이미 우리 모두가 절실히 경험하고 있지 않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금의 충북도 현실이 이 같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으니 이에 대한 철저한 대

책을 지금부터 세워야 한다.

지난해 말 우리도의 인구는 1백49만 4천5백여명으로 나타났다. 12개 시·군 중 청주시가 62만6천6백79명이었고 청원군이 13만6천5백38명으로 나타나 이를 합치면 76만3천2백17명이 청주,청원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는 도내 총인구의 절반을 훌쩍 넘고 있다.

여기에서 청원군의 경우 전년도보다 지난해만 1만6천7백54명이나 늘어났으며 이 같은 현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속되리라는 전망이어서 청주, 청원권으로의 인구유입은 날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청원군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의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충주시의 인구는 지난 1974년 23만5천7백84명을 기록한 이후 1990년부터 줄기 시작해 지난해 말 현재 20만4천 1백60명으로 나타났다. 지난 한해만 해도 1천2백97명이나 줄어들었다.

이 같은 원인의 가장 큰 요인 중의 하나는 충북도가 청주,청원권을 집중개발하고 있는데 따른 부작용인 것이다.

물론, 충북도는 이에 대해 북부권에 기업도시 및 혁신도시 분산배치, 남부

권에 바이오농산업단지조성 등 나름대로의 대책을 세우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미비한 방편으로는 결코 멀지 않은 훗날 후회막급을 면치 못할 것을 단언한다. 이미 절반이 훨씬 넘는 청주,청원권의 인구는 이 지역의 발전을 가속화할 것이고 충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청주, 청원권으로의 발전전략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북부권 및 남부권의 침몰을 가져와 결국은 충북도 자체의 존립마저도 위협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충북도는 도민들과 함께 12개 시·군민 모두가 골고루 잘사는 행복한 도민을 만들기 위한 균형있는 발전대책을 세워야 한다.

경제특별도 건설을 선언하고 하이닉스 공장유치를 위해 밤잠을 설치고 오송, 오창 IT, BT산업을 유치하고 고속철 역사를 유치하는 것이 결국은 도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한 몸부림이 아닌가? 여기에서 12개 시·군민 모두가 더불어 잘사는 아름다운 세상이 된다면 얼마나 더 좋겠는가? 충북도의 특단의 대책을 기대해 본다.

충북도는 균형발전에 힘써야

2006 의정대상 수상



이 중 호 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지난 1월 5일 이중호 의원(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이 「2006의정대상」을 수상하였다.

2006의정대상은 시사월간지 뉴스포커스가 전국의 광역·기초의원회원을 대상으로 시민단체의 제보, 의정활동 내용, 지역주민의 의견 등을 종합 심사하여 선정한 것으로, 지방자치와 의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어 전국 3,621명(광역의원 733명, 기초의원 2,888명)의 지방의원 중 이중호 위원장 등 6명이 영예를 안았다.

이 위원장은 수상 소감을 통해 “여러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은데 의정대상을 받게 되어 뭐라고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 이 모든 영광이 제천시민과 충청북도민의 뜻으로 알고 ‘만인의 위’보다 ‘만인이 필요해서 찾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소신을 밝히며 겸손해 하였다.

충청북도 자치연수원에서는 우리 도민들을 위하여 연중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도민교육(1/4분기)을 희망하시는 도민께서는 교육신청을 하시면 교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육신청 및 상담문의

- 도 : 충청북도자치연수원 도민연수와 ☎043)220-5282~5,220-5292~7
- 시·군 : 도민교육담당부서
- 읍·면 : 총무 및 산업담당
- 인터넷 홈페이지 : <http://loti.cb21.net>

2007년도 도민교육계획

구분	과정명	교육대상	교육기간	교육일수	기수(기)	인원(명)
의식교육	여성농업인반	여성농업인·전문농업 경영인 배우자	3.28	1일	1	50
영농기술교육	양봉반	양봉농가 및 희망농가	1.26	1일	1	70
	수박재배반	수박재배 및 희망농가	1.30~1.31	2일	1	40
	사과재배반	사과재배 및 희망농가	2.6~2.7	2일	1	50
	고추재배반	고추재배 및 희망농가	2.13~2.14	2일	1	40
	농업정보화반	정보화실천 및 희망농가	2.22~2.23	2일	1	30
	농약안전반	농약판매업자·관리인	2.27	1일	1	280
	인삼재배반	인삼재배 및 희망농가	3.2	1일	1	70
	농산물전자상거래반	전자상거래농가	3.6~3.7	2일	1	40
	바이오친환경양돈반	무항생제 양돈농가	3.13	1일	1	40
	바이오친환경양계반	무항생제 양계농가	3.16	1일	1	40
농기계교육	친환경농업반(채소반)	친환경실천 및 희망농가	3.21~3.23	3일	1	80
	농기계 정비반	농기계보유 및 희망농가	1.23~25/2.13~15	3일	2	60
	기계화영농농사반	기계화영농농사 및 희망농가	1.28~2.2/2.5~4/3월11.28~30	5일	2	40
	관리·이양기반	관리기·이양기 보유자	2.27~2.28	2일	1	30
	취농인농기계반	도내 신규취농인	3.12~3.16	5일	1	20
	트랙터·굴착기반	트랙터·굴착기보유자	3.27~3.28	2일	1	30



건강보감

사상체질에 따른 올바른 숙취해소법

즐거운 술자리에서 적당한 음주는 스트레스를 푸는 기회도 될 수 있지만, 과도한 음주와 잦은 음주는 결국 본인의 건강을 악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겠다.

술이라는 것은 동의보감에 보면 그 성질이 뜨겁고 독이 있다고 하였다. 적은 양의 음주는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심장병에 일부 도움이 된다고 하나, 자기의 주량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주독으로 인해 몸이 상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술을 마시게 되면, 몸에 주독이 생기게 되는데 이를 해독하기 위하여 몸에서 많은 양의 수분과 당분, 그리고 에너지를 필요로 하게 된다. 해독과정에서 수분을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탈수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많은 양의 에너지가 소모되기 때문에 자고 나서도 개운하지 않고, 몸이 무겁고 피로감을 심하게 느끼게 된다.

술은 성질이 더운 편이므로 더운 성질에 의해 온몸에 혈액을 잘 돌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혈관의 팽창에 의해 땀이 나면서 평소 냉체질의 경우에는 체온이 오히려 내려갈 수 있다.

평소 위장이 냉하고 허약하여 소화력이 부진하고, 입맛이 별로 없고 손발이 차가운 편이고 특히 명치를 중심으로 늑골의 좌우각도가 90도 미만의 몸통이 작고 상대적으로 골반의 크기가 항아리처럼 큰 체형을 한의학에서는 '소음인'이라고 한다. 선천적으로 위장이 약하여 흡수장애로 인해 빈혈과 저혈압도 흔한 편이다. 음주를 하게 되면 위장이 쉽게 상하게 되므로 다음날 식욕부진, 속쓰림, 설사, 두통, 어지러움, 피로감 등을 많이 느끼게 된다.

이와는 반대로 소화기장에는 별로 느끼지 않지만, 평소 주량보다 과음을 하게 되면 뒷목이 뻣뻣하고 어깨나 등이 결리고, 눈의 피로를 많이 느끼며 몸에서 열이 많이 나서 잘 때 옷을 입고 자지 못하는 체질도 있다. 태음인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소양인은 소화에 큰 어려움을 느끼지는 않으나 원칙적으로 술을 잘 마시지 못한다. 평소 열이 많기 때문에 소주라도 한잔 하면 금방 얼굴이 붉어지고 온몸의 피부가 붉어지면서 가려움을 많이 느낀다.

소양인 중에 술을 약간 마시는 경우도 있지만, 반복되는 음주로 인해 두통과 요통, 피부병을 경험하게 된다.

소음인의 경우에는 소량의 음주가 바람직하며, 만약 과음을 하였을 때에는 위장장애를 많이 느끼게 되므로 위장을 편안하게 하고 숙취를 해소할 수 있는 꿀차나 인삼차를 여러번 복용하는 것이 좋겠다.

소양인의 경우에는 평소 열이 많은 체질이므로 녹차와 수박, 오이 같은 시원한 성질의 음료나 과일을 섭취하면, 숙취해소에 도움이 된다.

태음인의 경우에는 체격이 근육질로

건장하며, 대개 얼굴이 검붉은 편인데, 음주후에 머리가 무겁고 뒷머리와 어깨가 무겁다면 침차를 복용하거나 침침을 마시는 것이 좋다.

간혹 과음으로 인하여 구토나 설사가 심해 근육경련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때에는 모과차를 복용하는 것이 좋고, 요즘처럼 추운 날씨에 과음 후에 편도선이나 목부위가 아픈 경우에는 유자차도 도움이 된다.

최선의 올바른 음주법은 자기주량에 맞는 적당한 양을 마시는 것이지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다음날 체질에 맞는 차나 주독을 해독할 수 있는 콩나물국, 미역국, 북어국, 조개국을 권한다.

음주 후에 주독을 푸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어렵겠지만 다음날 아침 1시간 정도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김태영 <청주백제한의원 원장>



의원동정



◀ **임현 의원**
(영동 제1선거구)

1월 16일 영동군에서 개최된 재향군인회 정기총회에 참석, 관계자 격려



◀ **이기동 의원**
(음성 제1선거구)

2월 1일~9일 음성군 일원에서 실시한 음성군 읍·면별 군정 보고회 참석, 관계자 격려



◀ **최미애 의원**
(열린우리·비례대표)

1월 15일 실시한 충북여성단체협의회장이·취임식 참석, 관계자 격려



◀ **장주식 의원**
(진천 제1선거구)

1월 30일 문백면에서 실시한 진천군 문백면 의용소방대장이·취임식 참석, 관계자 격려



◀ **이규완 의원**
(옥천 제1선거구)

1월 31일 옥천농협 회의실에서 개최된 옥천 재향군인회에 참석, 회원 격려



◀ **이영복 의원**
(보은 제2선거구)

1월 31일 회백면에서 개최된 군정업무보고회에 참석, 관계자 격려



◀ **정윤숙 의원**
(청주 제5선거구)

1월 28일 충청북도 제3별관에서 아름다운 가게 주관으로 개최된 “2007 아름다운 나눔 보따리” 행사에 참석, 관계자 격려



◀ **권광택 의원**
(청주 제6선거구)

2월 1일~28일 까지 공공기관, 기업체, 시민·사회단체, 언론사가 참석한 설맞이 “사랑의 쌀 선물하기 운동” 추진



◀ **송은섭 의원**
(진천 제2선거구)

1월 19일 이월 농협에서 실시한 이월면발전협의회 창립총회 참석, 축사 및 관계자 격려



◀ **이연구 의원**
(충주 제1선거구)

1월 30일 가금면 장천리 일대의 수해상습지역을 방문하여 주민들과 항구대책 협의



◀ **김화수 의원**
(단양 제1선거구)

1월 21일 단양 다목적 체육관에서 실시된 단양군 탁구협회장이·취임식에 참석, 축사 및 관계자 격려



◀ **오용식 의원**
(괴산 제2선거구)

1월 31일 청안면 부흥원봉사실에서 실시된 부흥의용소방대장이·취임식에 참석, 축사 및 관계자 격려



◀ **이필용 의원**
(음성 제2선거구)

1월 30일 금왕읍 주민자치회의에 참석, 관계자 격려 및 당면현안과 애로사항 청취



◀ **강태원 의원**
(한나라·비례대표)

1월 15일 개최된 청주 하이닉스 유치 궐기대회에 참석, 관계자 격려



◀ **연만호 의원**
(증평군 제2선거구)

1월 27일 증평군 도안면 번영회에 참석, 당면 현안 및 애로사항 청취



◀ **조영애 의원**
(영동군 제2선거구)

1월 30일 황간면에서 개최된 황간농협 정기총회에 참석, 축사 및 농업인과 농협관계자 격려

〈말풀이 세상말이〉

지자불언(知者不言)과 말잔치

한양풍물을 소개하는데, 한양구경을 하고 온 사람과 한양 성 밖에도 가보지 못한 사람이 말싸움을 하다보면, 한양 성 구경도 못한 사람이 이긴다는 말이 있다. 역시나 생떼가 이긴다는 뜻도 있지만, 허세와 과장이 진실을 호도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말은 마음의 대변자이며 영혼의 모습이다(몰리에르: 프랑스 극작가)’라고 한 이가 있는가하면, ‘말은 생각하는 것을 속이도록 인간에게 주어진 도구다(탈레랑: 프랑스 정치가)’라고 한 이도 있다. 말의 진실성에 대한 해석에 극단의 차이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모두(冒頭)의 사례는 물론 후자의 해석에 해당할 것이다. ‘말’의 진실성에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말의 진실성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다변(多辯)을 경계하는 속담이나 금언이 우리의 귀 가까이에서 흔한 것도 그만큼 ‘말’에 대한 신뢰, 말 많은 사람에 대한 신뢰가 희박하기

때문일 것이다.

말 많은 집은 장맛도 쓰다./ 말은 할수록 늘고 되질은 할수록 준다./ 말이 많으면 쓸 말이 적다./ 말로 동네잔치 다 한다. 말의 허구성이나 다변을 경계하는 속담이나 금언들은 이 외에도 많다.

노자(老子) 56장에 이런 말이 나온다.

지자불언 언자부지 (知者不言 言者不知)

아는 사람은 함부로 말하지 않고 말이 많은 사람은 진실을 알지 못한다는 뜻이니, 이 역시 말의 진실성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다변을 경계하는 것이다.

자공(子貢)과 안회(安回)는 공자의 문하에서 가장 재주가 뛰어난 제자였다. 자공은 외교와 경제에 밝아 그 이름이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졌지만 공자는 그가 항상 말이 앞서서 것을 경고했다. 반면에 안회는 자공 못지않게 재주가 많았으나 말이 없고 세상에 나가 활동하는 일이 없으므로 사람들에게 별로 알려지지 않았다. 공자는 그런 안회를 이렇게 평했다.

‘내가 안회와 하루 종일 말을 해도 그는 바보처럼 듣고만 있다. 그러나 나가서 행동하는 것을 보면 역시 바보가

아니다.’

노자가 말한 ‘지자불언’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어느 날 공자는, 자공이 자신이 가장 뛰어나다 믿고 자만하는 것 같아 이렇게 물었다.

‘자공아, 너와 안회 중 누가 더 낫다고 생각하느냐?’ 이에 자공이 대답하기를 ‘제가 어떻게 안회와 같기를 바랄 수 있습니까? 회는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알고, 저는 하나를 들으면 둘을 알 뿐입니다.’ 하였다. 자공도 안회가 ‘지자불언’의 경지임을 알고 있었다. 사례 모두가 다변을 경계하고 언어의 구실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지만, 언어의 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말을 도구로 사용하는 인간에 대한 신뢰, 진실성에 의구심을 품고 있는 것뿐이다. 말을 하되 적게 진실하게 그리고 실천을 동반하라는 뜻이다.

노아의 홍수 후, 기름진 평야에 정착한 인간들은 생활이 풍족해지자 힘을 모아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으려했다. 인간들의 도전에 당황한 하나님은 인간들이 각기 다른 말을 쓰도록 해서 언어의 혼란을 빚도록 했다. 인간들의 단결은 와해되고 탑 쌓기는 좌절되었다. 성경에 나오는 얘기로, 언어의 구실이,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다.

말을 삼가라 조심하라 경계하는 것은 허언, 교언(嬌言), 독설, 낭설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허언은 진실을 속이고 교언은 지혜를 죽인다. 독설은 상처를 주며 낭설은 혼란을 낳는다.

12월 대선(大選)까지 열한 달, 보나마나 허언, 교언, 독설, 낭설이 난무할 것이다.

지난 대선 때도 병역카드 한 장에 묻어나온 허언이 판세를 뒤집었고 갖가지 교언, 독설, 낭설이 유권자를 혼란에 몰아넣었는가하면 남남분열의 깊은 상처를 남겼다.

대선에 치를 말잔치만도 겹나는 판에, 불속 튀어나온 개헌 찬·반론이 또 무슨 말잔치를 키위 사람들 마음에 혼란과 불신을 심고 분란을 부릴지 심히 우려스럽다.

얇은 귀가 화근인 벌. 온 국민이 귀를 씻고 정신을 가다듬어 어지러운 말잔치에 휘둘리지 말 일이다. 나라 잘되고 못되고는 남의 덕도 탓도 아니다. 유권자, 바로 나 자신의 책임이기 때문이다.

안수길 <소설가>